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19호

[친절한 뉴스K]

“비만 문제 심각”...초등 1·2학년 ‘체육 신설’

김세희 KBS 기자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국 196개소에서 운영

500,000명 참여하는 '무료 생활체육강습' 시작됐다

동규 노컷뉴스 기자

스포츠재단 해결 없이 체육대회 갈등 봉합 불가전망

태백·양구 스포츠재단 후폭풍?...체육대회 취소·선수단 불참 등

홍춘봉 프레스인기자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단독]韓 테니스 80년 초유의 사태? "관리 단체 지정, 체육회 이사회 상정"

임종률 노컷뉴스 기자

[스포츠 인앤아웃]

트랜스젠더와 여성 스포츠

장환수 뉴스핌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1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비만 문제 심각”...초등 12학년 ‘체육 신설’

앵커

안 그래도 운동량이 부족한 요즘 학생들, 코로나19로 학교 안 가는 동안 비만이 더 늘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문제가 심각해 체육 수업이 강화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찬성과 반대 입장은 어떤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35년 만에 초등학교 1, 2학년에 체육 과목이 별도로 생깁니다. '그동안은 체육 시간이 없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현재 초등 1, 2학년 체육은 5차 교육 과정이 적용된 1989년부터 음악, 미술과 함께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 과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음악과 미술, 체육을 교사의 분배에 따라 배울 수 있는데, 여기서 체육이 분리돼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 신설되는 겁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초등 1, 2학년 신체 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 교육 과정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이유는 지난해 교육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당시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비만 문제가 심각하다며 저학년의 신체 활동 시간을 늘리기 위해 체육 교과를 분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교사계에선 체육 과목 분리 및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98%의 교사가 체육 과목 분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충분한 논의 없는 졸속 추진'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또 발달 단계에 맞는 통합 교과 필요성과 비 교육 전문가의 개입 우려가 뒤를 이었습니다.

체육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큼니다. 따라서 이를 책임져야 하는 교사의 부담감이 늘고 관련해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입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불필요한 교과 분리 개정 논의는 버리고 학교 현장 체육 활동 공간 마련과 개선에 나서라"며 "학교에서 신체 활동 수업을 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육 활성화를 위해 과목 분리를 요구해 온 대한체육회 등 체육 단체와 문체부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학부모들도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체육마저 사교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을 덜 수 있겠다는 겁니다.

기초 연구와 교과서 개발 등의 절차가 남아 체육 교과를 분리하기까진 2~3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은 시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즐거운 체육 시간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500,000명 참여하는 '무료 생활체육강습' 시작됐다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무료 생활 체육 강습이 이달 들어 본격 시작됐다. 전국 곳곳의 야외 공간에서 일제히 이뤄지는 강습은 새벽 6시 ~ 저녁 9시까지 진행된다.

10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5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196개소에서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월 ~ 금요일까지 주 5차례(134회 수업) 진행한다. 오전 6 ~ 9시, 오후 6시 ~ 9시 등 하루 두 번 문을 연다. 공원, 광장, 둔치 등 강습 장소에 별도의 신청 없이 방문하면 무료 체육 강습을 받을 수 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 체조, 라인 댄스, 국학기공 등의 강습을 운영한다. 강습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근력 강화 등 참여자들의 건강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51만명이 강습에 참여했다. 올해는 강습소가 소폭 늘어난 만큼 참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한 주민들의 호응도 뜨겁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98.1%)의 참여자들은 '기회가 된다면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 '동작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됐다', '가까운 거리에서 전문적이고 재미있는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지역별 교실 운영 장소 및 시간 등의 세부내용은 대한체육회 체육포털내 '생활체육-체육활동-'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게시판에서 '운영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또 각 교실별 운영 시·군·구체육회로 문의해도 된다.

대한체육회는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생활 체육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을 지난 2021년부터 주최하고 있다. 시·도체육회와 시·군·구체육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대한체육회 생활체육부 관계자는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참여자들은 수업을 통해 배운 동작들로 지역내 생활 체육 대회에 출전하기도 하는 등 스스로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활 체육 활동 입문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체육 활동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 및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태백시 체육 중목단체 설명회

[일시] 4. 4. 25 15:00 [장소] 태백시 체육회

태백 양구 스포츠재단 후폭풍?... 체육대회 취소 선수단 불참 등

스포츠재단 갈등으로 태백시와 양구군의 스포츠대회 개최에 적색등이 켜졌다.

10일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내 시군체육회장협의회는 스포츠재단이 설립됐거나 스포츠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시군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는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구군의 경우 지난 4월 양구에서 개최예정이던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무기 연기된 가운데 서흥원 양구군수의 초청으로 지난 9일 양구군에서 강원도 시군 체육회장단과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양구군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체육회장단과 서흥원 양구군수의 입장차만 확인한 가운데 스포츠재단의 문제점에 대해 체육회장단의 입장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스포츠재단 설립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태백시의 경우 집행부와 시체육회의 간담회조차 열리지 못하는 가운데 태백국민체육센터 위·수탁 문제로 소송전까지 전개된 상태다.

태백시는 국민체육센터에 시체육회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다른 장소로 체육회 사무소 이전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태다.

특히 태백지역의 경우 스포츠재단 갈등으로 전국대회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은 물론 도내 18개 시군선수단의 불참 통보로 일부 대회는 반납되거나 반쪽 대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까지 14년, 10년간 태백에서 각각 개최해온 태백산배전국 중고배구대회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중고태권도대회는 올해 인제와 철원으로 개최장소가 변경되었다.

또 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전국탁구대회 등 탁구대회도 최소 3개 대회가 취소된 것은 물론 남녀 궁도대회 등은 대회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도 도내 선수단 참여가 불투명해졌다.

태백지역 한 스포츠가맹단체장은 "태백시가 체육인들의 반대를 외면하고 스포츠재단 설립을 강행하는 바람에 대회취소와 참여선수단 축소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 체육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태백시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시체육회의 업무와 태백시의 행정업무는 별개"라며 "스포츠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체육대회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태백시는 올해 58개 대회(전문 27개 대회, 생활체육 31개 대회)를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상당수 체육대회는 1~2일의 단기 일정이거나 선수단이 적은 대회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단독]韓 테니스 80년 초유의 사태? "관리 단체 지정, 체육회 이사회 상정"

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2024.05.09

테니스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종목을 총괄하는 협회가 사상 초유의 관리 단체 전략 위기에 몰렸다.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이사회에 관련 안건을 정식으로 올리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8일 CBS노컷뉴스에 "전날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대한테니스협회의 관리 단체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면서 "관리 단체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체육회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7일 심의위에는 테니스협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손영자 협회장 직무 대행은 8일 "위원장 이하 심의위원들에게 현재 협회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관리 단체 지정에 확고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육회 심의위는 협회가 관리 단체로 지정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협회가 육군사관학교 테니스 코트 운영 문제로 중견 기업인 미디어월에 4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도. 체육회 정관 제12조 1항 가맹 단체의 관리 단체 지정 요건 중 '재정 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 불가'를 적용한 것이다.

관리 단체로 지정되면 협회 임원진은 해임되고 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운영을 맡는다. 지난 1945년 창설돼 내년 80주년을 맞는 협회가 초유의 관리 단체 지정이라는 수모를 겪게 되는 셈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육사 코트를 둘러싼 테니스계의 분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26~28대까지 협회장이 모두 갈리는 과정에서 생긴 거액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테니스의 황금기'임에도 협회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린 것이다. 협회 26대 주원홍 회장은 친동생인 주원석 회장의 종합 미디어 그룹인 미디어월에 30억 원을 빌려 2015년 육사 코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대신 미디어월에는 코트 운영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27대 박용운 회장이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선 실내 코트의 불법성 등을 이유로 미디어월과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미디어월이 제기한 소송에서 협회가 1, 2심에서 패소하면서 원금 30억 원에 이자까지 60억 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게 됐다. 28대 정희균 회장은 미디어월과 부채 협상을 위한 협약을 했지만 육사 코트 운영권 이관을 해결하지 못했다. 여기에 배임 의혹까지 일면서 지난해 9월 정 회장이 사퇴하고 대행 체제로 협회가 운영돼왔다. 그럼에도 현 집행부는 협회의 관리 단체 지정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손 대행은 "정희균 회장이 사퇴한 시점에서 관리 단체 지정이 됐다면 오히려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후 7~8개월이 흐른 상황에서 체육회가 움직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가 힘든 가운데서도 공식 용품 계약을 해서 대표팀을 지원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재정 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 불가'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손 대행은 "7~8개월 동안 8억 원 상당의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등 미디어월의 부채를 빼면 협회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월도 최근 협회에 대한 압류를 풀어주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협회는 미디어월 사태로 지난 2022년 9월 메인 스폰서로 계약한 하나증권으로부터 지난해 후원액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압류가 풀리면서 지난해 미지급된 후원액이 조만간 입금될 예정이다. 대행 체제 이후 협회 운영비를 넘는 수준의 거액으로 알려졌다.

테니스계 일각에서는 체육회의 움직임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초 협회는 정 회장 사퇴 후 지난해 10월 회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고, 주원홍 회장과 박용운 회장은 물론 예종석 부회장 등 3명이 입후보까지 마쳤다. 그러나 선거 일주일 앞두고 체육회 이기홍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출마 후보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선거 중단을 선언했다. 특히 이 회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스포츠윤리센터가 과거 3명의 테니스협회장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게 완결돼 모든 게 소명될 때까지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윤리센터는 정희균 회장 개인 비위 사안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체육회가 선거 불가의 이유로 꼽은 주 회장, 박 회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실익 없음'으로 종결됐다.

그럼에도 체육회가 협회의 선거 중단에 이어 관리 단체 지정까지 추진하는 것은 배경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한 테니스계 관계자는 "이기홍 회장이 3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은 체육계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면서 "협회 전 회장들이 여야 정치권에 연계돼 알력 다툼이 있는 만큼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리 단체가 되면 체육회, 특히 이 회장의 입김이 통하는 인물이 협회 운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협회 초유의 위기에 테니스계도 체육회의 절차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도테니스협회 사무국장 협의회는 지난 6일 '대한테니스협회 관리 단체 지정 결사 반대의 건'이라는 공문을 체육회에 보냈다. 협회장 선거를 올해 상반기에 시행해달라는 요구 사항도 전했다.

또 남녀 국가대표 출신들도 9일 올림픽공원에 모여 협회의 관리 단체 지정을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한다. US 오픈 16강 2회의 이형택 오리온 감독, 서울아시안게임 4관왕 유진선 전 의정부시청 감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스포츠 인앤아웃] 트랜스젠더와 여성 스포츠

화두부터 던져놓고 시작하자. 여성으로 성전환 한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경기 출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과연 공정한가.

기자는 도통 모르겠다. 아마 이 칼럼을 다 쓰고 난 뒤에도 답은 못 찾을 게 분명하다.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생소한 분야인 때문일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양성평등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우리 사회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 더 클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없고 비난과 처벌만 있는 양성평등 문제. 선불리 의견을 내는 게 쉽지 않다. 팩트만 놓고 살펴보자.

◆성을 바꿀 권리는 지지하지만 공정은 더 중요한 가치?

최근 눈에 띄는 외신보도가 있어 소개한다.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와 스완지대 연구진은 지난달 16일 스포츠 학술지 저널 오브 스포츠 사이언스에 논문을 게재했다.

여성 선수 대부분은 남성에서 여성이 된 선수와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 세계 각지의 여성 선수 17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종목도 하키, 카누, 육상, 수영 등 다양했다.

응답자 중 58%는 스포츠 경기 출전만큼은 성 정체성이나 사회적 성별이 아닌 생물학적 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이 월드클래스로 분류한 올림픽, 패럴림픽, 주요 세계대회 출전자만 놓고 보면 이 비율은 77%로 급등한다.

이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성전환을 둘러싼 공정성 갈등의 당사자인 여성 엘리트 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가장 큰 규모의 조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 럭비 육상 등 남녀 편차가 큰 종목 선수에 비해 양궁처럼 신체능력보다 집중력이 요구되는 종목 선수들이 부당하다고 답한 비율은 32%로 뚝 떨어졌다. 오히려 괜찮다는 응답이 51%로 절반을 넘겼다.

전체 응답자의 94%는 성 정체성이 이끄는 대로 생물학적인 성을 바꿀 권리를 지지했다. 종목별 주관단체들도 81%가 성전환 선수를 위해 더 포용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양면적인 반응에 대해 연구진은 트랜스젠더의 '인권'은 중요하지만 경쟁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공정'이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가 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 하나 배우긴 했다. 그러나 과연 이게 유일무이한 해답일까.

◆트랜스젠더보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여성도 실격?

7월 말 개막하는 2024 파리 올림픽은 벌써부터 이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3년 전 도쿄 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한 트랜스젠더의 본선 출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쿄 올림픽에선 뉴질랜드 역도 선수 로렐 허버드가 여자 최중량급(+87kg)에 출전했다. 허버드는 이름이 개빈이던 시절에도 최중량급(+105kg) 선수로 활동했다. 주니어 때 이미 인상 용상 합계 300kg을 들어 올린 유망주였다. 이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75kg급)의 예전 세계기록 326kg에 육박한다.

그러나 허버드는 성 정체성 고민이 커지면서 23세에 운동을 그만뒀다. 30대 중반인 2013년 성전환 한 뒤 다시 바벨을 잡아 43세에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허버드가 인상 부문에서 세 번의 기회를 모두 날려 일찌감치 메달 획득에 실패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논란은 진행되지 않았다.

허버드와는 달리 전성기 때 성전환 한 선수도 있다. 미국 수영선수 리아 토마스는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이다. 그는 1년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뒤 출전한 2022년 미국대학선수권대회 여자 자유형 500야드에서 압도적 기량을 선보이며 우승했다. 그의 남자 시절 미국 랭킹은 400위권이었다. 당시 그와 같은 라커룸을 썼던 여자 선수들은 대부분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 장 계속

이후 국제수영연맹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가이드라인인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혈중농도에 대한 규정 외에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한 선수에게만 여자부 경기 출전을 허용한다고 결정해 토마스의 출전을 원천봉쇄했다.

이에 토마스는 올해 1월 IOC 산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나보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고, 골격근량이 많은 여자 선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선수도 실격인가"고 반문했다. IOC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국내에선 지난해 6월 강원도민체육대회 사이클 종목에 나화린이 출전했다. 2012년 이 대회 4관왕 출신인 그는 2022년 10월 수술을 받고, 지난해 4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서 대한체육회에 자문을 구해 출전 자격을 얻었다.

180cm, 72kg의 건장한 체격에 골격근량이 32.7kg에 이르는 나화린은 37세의 나이에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그는 "경쟁한 선수들에겐 죄송하다"면서 "(우승이 아니라) 논란이 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경쟁에서 남녀 기량 차이만 있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스포츠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수한 기량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기록경기가 아니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해서 그렇지 복싱 태권도 유도 레슬링 등 격투기에서 남녀가 맞붙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역도는 기록경기에서 남녀 편차가 가장 큰 종목이다. 체중이 무거울수록 차이는 더 벌어진다. 조지아의 라샤 탈라가제는 2021년 세계선수권대회 최종량급에서 인상 225kg, 용상 267kg을 들어 남자 세계기록을 경신했다. 여자 최종량급 세계기록 보유자인 러시아의 타타냐 카시리나(인상 155kg, 용상 193kg)는 탈라가제의 68.9%, 72.3%에 불과하다.

흥미로운 점은 카시리나가 남자 61kg급(318kg)과 67kg급(339kg)의 세계기록을 능가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남성이 여성을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체격이 큰 여성이 작은 남성을 압도할 수 있다는 반증이다. 앞서 토마스가 제기한 의문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래서 체급을 나눠 공정을 꾀한다고는 하지만, 세상은 남녀와 체급이란 기준 외에도 80억 인구 숫자만큼 많은 차이가 존재하지 않은가. 이 수많은 차이를 다 담아내 '절대 공정'을 세우기는 신이 존재하더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마치 선택적 복지가 맞느냐, 보편적 복지가 맞느냐와 비슷한 논쟁이다.

물론 남녀 차이가 거의 없거나 역전된 종목도 있다. 사격 10m 공기소총과 권총, 25m 권총 등에선 여자가 남자 세계기록을 앞선다. 사격은 다른 세부 종목에서도 차이가 거의 없다. 양궁은 전체적으로는 남자가 약간 앞선다는 게 정설이지만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등 주요 대회에선 역전이 종종 일어난다. 이밖에 컬링, 승마 같은 경우는 성대결을 해볼 만하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이들 종목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한 트랜스젠더의 출전이 이어진다면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반면 멘털 스포츠에선 일반적 예상과 달리 남자가 훨씬 앞선다. 바둑에선 중국의 루이나이웨이 9단이 2000년 동아일보 국수전에서 우승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여자 바둑 세계 1인자인 최정 9단의 국내 랭킹은 22위이다. e스포츠인 스타크래프트에선 여자 게이머가 우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최근 들어선 미인대회에서 여자로 성전환 한 트랜스젠더의 참가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남성으로서 과거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이나 작은 대회는 빼더라도 지난해 7월 네덜란드에선 리키 콜러가, 10월 포르투갈에선 마리나 마체테가 우승컵을 안았다. 그러자 이번엔 이들이 남성이기에 여성 참가자들이 역차별을 받았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일부에선 이런저런 불만을 없애기 위해 트랜스젠더 부문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독일 베를린 수영 월드컵에선 '모든 성별과 성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를 위한 부문'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IOC는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선 불가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경기 출전은 누구에게나 선명하게 보이는 대표적인 논란이긴 하지만 전체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더 폭넓은 관점에서 차이와 차별의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차이는 남녀 기준뿐만 아니라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여자가 항상 불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주간 스포츠 소식

코치로부터 성적학대 당한 美 테니스 유망주...배상금 123억원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508601007&wlog_tag3=naver

경기도 체육인들이 공감한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 '김포'

<https://www.fnnews.com/news/202405101156575049>

태안군, 제5회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준비 돌입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10_0002730248&clD=10807&plD=10800

겸직금지 위반에 갑질 의혹...인천시체육회 직원 중징계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8089300065?input=1195m>

부산가톨릭대, 노동자 '스포츠권' 보장 프로그램 운영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40510500171>

원주시 '2024 생활체육 한마음대제전' 오늘 개막

<https://www.news1.kr/articles/5411907>

문체부 "지역활력타운 사업 통해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509001369>

보은군 반다비체육센터 조성 온 힘..."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https://www.news1.kr/articles/5412672>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 수익 장애체육인에 기부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10_0002730230&clD=10401&plD=10400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